

## 스즈짱 드롭킥! 1화 -한국어



“나왔다! 롤링소배트에서 이어진 필살의 콤비네이션 킥! 파이터엔젤의 맹러쉬다!”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내리쬐는 링 위. 그 곳에서 두 여성 프로레슬러가 격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상대는 빠른 발차기로 레드웍이라는 링네임을 가진 헬즈플레이어 에이스레슬러, 하지만 스즈의 화려한 킥 비네이션 앞에 손도 발도 내밀지 못하며 오직 링에서 춤출뿐이었다. 이미 그로기 상태에 놓인 레드웍을 두고, 스즈가 탐로프를 밟고 뛰어올라 공중을 돈다.

“어이쿠, 이 태세는!”

“이 기술로 마지막입니다!”

문설트태세에서 스즈가 레드웍의 머리를 감싸쥐고 몸에 반동을 일으켜 매트 위로 낙하한다.



쿠-웅!

"가하앗!!"

매트를 두드리는 굉음과 함께 터져 나오는 단말마의 비. 후두부로부터의 충격이 레드웍의 전신을 타격한다.

"리버스 DDT! 레드웍! 충격에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매트에 다운! 일어지 못한다!"

스즈가 매트에 실신한 레드웍을 두고 링에서 빠져나가려하자 심판 제지한다.

"이봐, 경기는 아직...!"

"카운트, 세어주세요."

심판이 링을 떠나는 스즈의 뒷모습을 보고 혀를 차고는 카운트를 센다.

"...8,9,10!"

링 위를 떠난 주역의 빈자리 관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메워진다. 룰대로라면 스즈의 장외패. 하지만 이미 관중들에게 그 카운트아웃은 장외카운트가 아닌 매트 위에 뺨어 있는 헬즈플레어 레슬러의 패배를 알리는 다운카운트였다.

헬즈플레어, 반년 전 돌연 나타나 활동을 시작한 수수께끼의 프로레스 단체. 구성원들 전원 악역 여성으로만 구성된 이 단체는 지금까지의 전적으로 보건데 한명 한명이 다수의 남자레슬러들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다. 그녀들은 살인레슬링을 자처하며 시합에 난입해 수많은 레슬러들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었으며 그 동영상 웹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유는 불명. 스너프필름에 필적하는 그녀들의 가학적 행위는 점점 도를 넘고 있지만 그 피해가 프로레슬링이라는 சொ로써 국소적으로 한정되어있었기에 일반 대중에게 그것은 그저 쇼에 불과한 일이었다.

그렇게 헬즈플레어의 압정으로 레슬러들의 생태가 위협받고 있을 때 나타난 것이 바로 수수께끼의 소녀레슬러 파이터엔젤이었다. 그 작은 체구의 소녀는 헬즈플레어 레슬러들만을 타겟으로 링에 난입해 차례차례 때려눕혀 큰 화제가 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선역 띄우기로 만들어진 히로인이라 생각했지만 신인 같지 않은

경기력과 높은 숙련도의 공중기는 관중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단기간에 많은 팬을 보유하면서 논란을 빠르게 잠식시켰다. 데뷔 이후 연전연승이지만 언제나 시합이 끝나기 전 모습을 감춰 공식 기록은 무승전패. 그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이다.

"야, 매니저!"

"네, 네엣!"

"뭘 멍하니있어? 빨리 링 위로 올라와!"

오토모리 여학원 프로레슬링부. 수많은 프로 선수를 배출한 일본 여자 프로 레슬링계의 명문이다.그러나 명문이라해도 그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법.

선배들의 명령에 따라 링 위로 올라가면 선배 중 한 사람이 뒤에서 스즈의 양 팔을 붙든다.

"담당 레슬러가 위기일때 방패가 되어주는것도 매니저의 일이라는거, 잘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근성을 길러주겠다는거야."

"넛! 네에..."

당연하겠지만 이지메를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무슨 기술에 당하든 스즈가 큰 데미지를 입을 일은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픈척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제 매니저에게 무슨 불일이죠? 선배님들. 관중들 앞에선 한 사람도 쓰러트리지 못하면서 뒤에선 매니저나 괴롭히고 창피하지도 않으신가요?"

"칫, 타카세잖아."

타카세 리나 현 오토모리 여학원 프로레슬링부 에이스레슬러. 그 실력은 동년배는 물론 전국의 성인 레벨에서도 이미 당할 자가 없다고 일컬어지는 천재레슬러였다.

"연습상대가 필요한거라면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뭇하면 3분 다 한꺼번에 상대해드려도 좋은데요."

타카세의 도발에 3명의 선배가 서로 눈치만 살핀다.

"칫, 지금 우리가 물러나는건 네가 우리 학교 간판이라 그런거야. 기억해두라고!"

스즈를 괴롭히던 선배들이 링에서 내려와 도망치듯 물러난다.

"기억해두라니.. 완전 조무래기 대사잖아. 저 사람들 할 일이 없는걸까?"

"고마워 리나짱. 덕분에 살았어."

하지만 그 말이 무언가 심기를 건드린걸까 리나가 스즈를 잠자코 노려본다.



“살았다고? 사실은 너 혼자 어떻게든 할 수 있었던거 아냐?”

“그, 그렇지 않아. 리나가 무슨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는걸...”

“너도 참 뻔뻔하네. 매니저라는 신분에 숨어있지 말고 그만 나오는게 어때?”

리나의 추궁에 스즈는 할말을 찾지 못하고 리나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혹시 뭔가 눈치채고 있는걸까? 말을 고르고 있는 사이 리나쪽에서 먼저 화제를 돌린다.

“너, 아리사토 선배랑 친했었지. 그 이후로 연락은 있었어?”

“없었...으려나.”

“원래라면 그 벨트는 정당한 승부로 받아야했던거였어. 하지만 사라졌지. 나와야 승부도 내팽겨치고. 그 사람도 결국 비겁자에 지나지 않았던거야.”

리나가 마음에도 없는 소릴 하고있다는건 스즈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리나 역시 아리사토 선배를 존경하고 있었으니까. 그 가시돋친 말투는 스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금새 알 수 있었다.

“선배는... 비겁자 같은게 아냐.”

“흥, 어떠려나. 그리고 너, 전에도 말했었지? 내 이름에 짱 붙이지말라고.”

“그래도..”

“난 너 같은 겁쟁이랑 친구먹은 기억 없으니까.”

더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자리를 뜨면서 리나가 한마디 던진다.

“언젠가 링에 오르게 해서 네 정체를 까발려주겠어. 명심해 뒤.”

정말 이걸로 좋은걸까. 친구를 속여서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스며드는 스즈였다.

어둠 깊은 장소. 헬즈플레이어의 2인자 엘렉트로 마리아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이전 스즈와 레드홉의 시합을 돌려보고 있었다. 심기가 불편한지 기계장치로 이루어진 몸에서 톱니가 연신 삐걱이고 있었다.

“이야~ 마지막 그 문썰트 태세에서 고각도 리버스 DDT, 그 완성도라던지 남성 경기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기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진일본 프로레슬링의 나지마 해설, 이번 시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엔젤씨는 대단한 신인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헬즈플레이어라는 수수께끼의 단체 자체가 실은 대단치 않은 단체였던걸지도 모르죠.”

“아니 하지만, 그 후루하타 선수를 포함해 많은 진일본의 선수들이 실제로 패전을 기록하고 있지 않던가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후루하타 선수는 컨디션이 좋지 못했습니다. 헬즈플레이어는 결국 어둠의 기술에 의지하는 힐레슬러들. 여자라고 방심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그녀들에게 있어선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어머, 꽤나 업신여김 당하는 것 같군요.”

“불난 집 구경오신겁니까? 시스터에빌.”

조금 전까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던 붉은 알몸의 여성이 물기를 땅바닥에 똑똑 흘리며 마리아에게 다가온다.



“설마요. 헬즈플레이어의 일원으로써 전 단체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걸요.”

텅 빈 눈동자는 그 심중을 읽을 수 없지만 그 비죽이는 입술을 통해 그것이 빈말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당신을 그런식으로 생각하는건 당신뿐일겁니다. 도움이 될 생각이 없다면 부디 이 자리에서 사라져주시죠.”

“후후. 성격 나쁜 마리아씨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이번 엔젤씨도 오래살긴 글렀군요.”

시스터에빌이 아랑곳 않고 마리아를 두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흠, 기분 나쁜 여자, 이번엔 무슨 공공이인건지.'

"있잖아, 그 계집애. 내가 말아도 될까?"

시선을 돌리면 핑크색 거구의 여자가 소파에 누워 접시 위의 포도를 뜯어먹고 있었다. 퀸슬라임 네로미였다.

"어머, 당신이? 무슨 바람이 분거죠?"

"그냥 심심풀이야. 그 계집애를 목사발로 만들어서 내 한을 풀어줄 생각이야."

"강한 녀석한테 상대가 안되니까 약한 상대에게 화풀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땅말미잘이 할 법한 생각이군요."

"뭐? 지금 뭐라했어?"

분개한 네로미가 그 거구로 위협하듯 마리아에게 바짝 다가간다.

"지금 나보고 돼지라고 했지? 돼지라고."

"어라, 그 편이 더 맘에 드나보죠? 성별까지 고려해서 암돼지라고 불러드릴 수 있는데. 어떠신지요?"

"크...! 열받는 여자! 그 천사만 곤죽으로 만들면 다음은 네 차례야!"

"다음으로 미룰거 없이 이 자리에서 덤벼오시는게 어때요? 마침 저녁상에 쓸 케첩이 필요한 참이었으니까요."

두 간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은 어린 유녀의 목소리였다.

"있잖아, 마리아. 어제 냉장고에 넣어둔 푸딩이 안보여."

짐승 귀를 가진 유녀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마리아를 보챈다.

"...어머, 그거 큰일이네요. 불쌍하게도.. 저랑 함께 찾아볼까요?"

겉보기는 평소와 같이 차가운 말투지만, 꽤 누그러져 있어. 그 유녀가 마리아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응. 마리아짱은 상냥해."

마리아가 네로미를 언제 신경이나 썼냐는 듯 네로미를 버려두고 유녀의 손을 잡고 떠난다.

"흠, 고철인형 주제에 업신여기다니. 응?"

문득 네로미의 시선이 스크린에 비춰진 스즈에게 고정된다.

"이 년, 어디선가..."

뭔가 기억을 더듬던 네로미가 곧 비열한 미소를 띄운다.

"후후후, 재밌어졌군."

---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해 공유 자제부탁드립니다.